메트로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제2737호 www.metroseoul.co.kr

넥타이 부대 붐비는 대학축제!

거리공연 보고… 디스코팡팡 타고 지난 16일 축제 마지막 날인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학교 교정에서 여학생 두 명이 캠퍼스 속식 공연을 하고 있다(왼쪽). 나내 소속인 두 학생은 '축제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겠느냐'며 술 대신 버스킹(길거리 연주)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1일 축제 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교정에 등장한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알코올 캠퍼스' 벗어나 다채로운 행사… 아이돌 공연 잇따르자 직장인·주민들 더 환호 "완전히 마을잔치 됐어요"

축제를 맞은 대학 캠퍼스가 술 냄새 대신 신곡 나는 선율로 물들어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서 '버스킹(돈을 번 목적으로 하는 길거리 연주나 공연)'이 펼쳐지고 술 대신 음료를 손에 쥔 학생들은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을 둘러싸고 연신 추임새를 넣는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 공연은 톱 게스티돌이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능가하는 수준이 된 지 오래다. 해당 대학 재학생들만의 잔치였던 대학 축제가 인근 주민은 물론 인근 거리의 직장인들까지 발품 팔아 찾아오는 나들이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10·11면>

지난 16일 찾은 홍익대학교 운동장. 축제 마지막 날 무대 위로 하얀 연기와 형진 불꽃이 피어오르자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 한 무리가 운동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넥타이 차림의 장정한(27·직장인)씨는 "대학 동기들과의 정기 모임 자리를 이번엔 아예 대학 축제로 잡았다"며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대학생이 된 것처럼 들뜬다"고 말했다. 인근 대학에 다니는 강혜니(22)씨는 "설월이면 고등학교 동창 5명과 함께 서로 재학 중인 대학 축제 투어를 즐긴다"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유명 가수의 공연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즐거워했다.

동네의 아줌마·아저씨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이날 연세대 축제의 최대 이벤트인 '아카라카' 공연을 보러 왔다는 주부 김지숙(46)씨는 "아들과 함께 왔는데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공연 전 맥주 업체의 프로모션 이벤트에 참가해 푸짐한 선물까지 받았다"며 소녀처럼 즐거워했다.

대학 축제를 재학생보다 인근 주민들이 더 손꼽아 기다리는 곳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제제 전야제로 치러지는 2013 재능기부 콘서트 하모니 를 지역 주민에게 나들이 장소로 개방했다. 동대문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전농동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홍보에도 신경을 썼었다. 박문규(23·행정학과) 총학생회 사회공헌국장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보답 차원인 동시에 문화 저변이 열악한 주민에게 질 좋은 음악회를 선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시크릿·씨스타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섭외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붓는 세태에 '등록금 낭비'라는 비난은 여전히 따라붙는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나 해당 인에 인와 팬들에게는 공짜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발 빠른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각 대학의 축제 일정과 섭외 가수 정보가 방문자를 늘리는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다. 모바일 웹 제작회사인 젤리코스터는 아예 카카오톡을 통해 각 대학의 연예인 공연 일정 등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주정인 젤리코스터 대표는 "론칭 이틀 만에 이용자 1만 명을 넘었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연예인 팬들도 상당수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ce1@metroseoul.co.kr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9월부터 찍히면 4만~5만원 과태료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해 단속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영등포·송파구의 자전거전용차로 11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7~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영등포구의 경우 여의도역과 샛강역 등 6곳에, 송파구의 경우 롯데월드과 올림픽공원 등2문 앞 등 5곳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CCTV 카메라 바로 앞에 주정차해 단속을 피하는 얌체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상 8m 이상 높이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며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인식 때 차량 번호가 기록되고 5분 경과 후 다시 인식해 단속하는 자동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674km의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는 55.4km다. /채현출기자 eleven@

대입 전형료 장사 못한다

돈 남으면 응시생에 환불

올해 대학 입시생들부터 입학전형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관련법이 일부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건을 22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입학전형료 전부 혹은 일부를 입시생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또 교육부령으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과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해 대학이 과도한 전형료를 책정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김유리기자

여직원에게 "뭐해" "같이 영화나 보러갈까" "♥♥♥" 쓸데없이 문자

이런 카톡질도 '성희롱'

동료 여직원에게 특별한 용건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직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하이 안녕', '뭐해' 같은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또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성이 남편인가' 등의 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뉴스&뉴스

'北 김정은의 특사' 최룡해 중국에 전격 급파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핵심 실세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자신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보냈다.

22일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 등은 최 총정치국장이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면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생일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을 옆자리서 보좌하는 최룡해.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김유리기자

김학의 前법무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곧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동호기자

서울대 강의평가 이번 학기부터 학생에 공개

● 서울대가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전면 공개한다. 서울대는 최근 학사위원회를 통과한 '학사과정 강의평가 개선안'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이번 학기 학부 강의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강의평가 결과는 학장, 교무부장, 학과장·담당교수 등 일부에게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유리기자

체세포 복제로 탄생한 특수목적견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을 찾아 체세포 복제로 탄생시킨 특수목적견을 22일 공개했다. 왼쪽은 세포를 기증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의 검역 탐지견 '카이저' 왼쪽에서 두 번째는 카이저의 귀에서 채취한 체세포로 탄생한 복제견. 나머지 네 마리는 천왕체 특별을 탐지견인 '미가'의 체세포로 탄생한 복제견이다. /연합뉴스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들통난 회장님들

이수영 前경총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 일부 명단 공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의 명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취재 결과를 발표했다.

명단에는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현강씨 등이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245명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이들 회사에 대한 정밀 검토를 거쳐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타파는 27일 재계 인원이 포함된 2차 명단을 공개하는 등 매주 한두 차례씩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해 기업의 세금과 금융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김유리기자 grace1@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CJ세무조사 자료 확보

검찰이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당시 조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수사진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형식적 수순을 밟긴 했지만 임의 제출과 비슷한 형식으로 국세청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CJ그룹이 2007~2008년께 이후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CJ그룹은 거액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 1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검찰은 탈세 등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기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022년까지 200여대 전력화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이 22일 충남 논산 상공을 날며 편대비행하고 있다. 수리온은 올해 2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여 대가 전력화된다. /연합뉴스

찔끔 새는 수입기저귀

가격 두배나 비싼데도 국산보다 흡수성 떨어져

해외 유명 브랜드 기저귀가 가격은 비싸면서도 흡수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인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팸퍼스 크루저', '하기스 프리미어' 등 미국 브랜드와 '군 하지메테노비다기', '마미포코' 등 일본 브랜드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고 22일 밝혔다.

1개당 가격이 454원으로 가장 비싼 팸퍼스 크루저는 흡수 시간과 역류량 등에서 우수했지만, 순간 흡수율에선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았다.

세 번째로 비싼 하기스 프리미어(317원)는 흡수 시간이 조사 대상 중 가장 길었다. 군 하지메테노하다기와 마미포코의 경우 흡수 시간과 순간 흡수율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떨어졌으며 가격도 각각 282원으로 비싼 편에 속했다.

국내 브랜드 제품 중에선 보솜이 소프트(203원), 뉴마망(204원), 토디앙 녹차(216원)가 저렴한 가격에 순간 흡수율에서 우수했으나 역류량과 흡수 시간 등에선 기능이 떨어졌다.

반면 국내 브랜드인 오보소 프리미엄과 보솜이 천연 코튼은 모든 면에서 양호했으며, 가격도 1개당 224~235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본 브랜드 제품의 경우 별도로 방사능 물질 검사를 했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면서 "유해 물질 안전성 평가에서도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비교 정보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제성기자 sjw@metroseoul.co.kr

체육시설 많은 동네 의료비 덜 들어

체육시설이 많은 동네일수록 주민의 의료비 지출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양천·광진구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 보유 상위 5개 자치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71만6634원으로 금천·동작·도봉·중랑구 등 체육시설 보유 하위 4개 자치구의 의료비 77만3435원보다 5만6000원가량 적었다. 상위 5개 구의 체육시설 수는 876곳, 하위 4개 구는 430곳이었다.

체육시설이 많은 지역 주민은 체육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상위 5개 구의 운동 참여율은 평균 17.3%였고 하위 4개 구는 9.6%로 집계됐다. /서윤조기자 sksun@

뉴스 & 뉴스

빚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3조4300억 경기도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서울, 부산 순으로 빚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 지방채무 잔액은 27조1000억원이었다. 2011년 말 28조2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경기도가 3조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조9462억원, 부산 2조9059억원, 인천 2조80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6275억원), 고양(2690억원), 천안(2437억원) 순이었다. /김승기기자

전기차 셰어링 하세요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카셰어링 업체 시티카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서울시 나눔카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원지청 도주자 사흘째 작은흔적도 못찾아

●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의 행방이 사흘째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정읍지역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수색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지만 22일까지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읍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동호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훈

보니와 클라이드 사살
1934년 5월 23일 미국 남부에서 1년5개월 동안 강도 등 범죄를 일삼은 클라이드 배로와 그의 애인 보니 파커가 루이지애나주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무차별로 쏜 87발의 기관총 세례를 받고 즉사했다. 대공황기에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시골 상점과 은행을 털고 사람을 살해했던 2인조 강도의 일탈한 여정은 1967년 아서 펜 감독이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서 볼 것으로 되살려내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다.

배 타고 걷고…바다를 알자

부산항축제 이달 31일 개막…다이나믹 해상쇼 등 다양한 행사

부산항에서 열리는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 2013 부산항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과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축제는 개막행사인 부산항 콘서트를 시작으로 ▲부산항 스탬프 투어 ▲다이나믹 해상쇼 ▲부산항 퍼레이드 ▲개그콘서트 '놀이와요 부산항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산항 콘서트에는 인기 가수 노브레인, 바비킴, BMK, 비투비, NS윤지, 이사빈, 한혜진 등이 초청됐다.

특히 배를 타고 북항을 둘러보는 부산항 투어는 인터넷 사전신청과 현장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기간은 22일 오후 1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홈페이지(www.busanportfestival.kr)에서 접수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산항과 부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열린다.

'바다사랑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는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오전 11시부터 해양경찰서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부산항 퀴즈 프로그램 '부산항 골든벨'은 2일 오후 3시 국립해양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같은 날 '부산항 가족사랑 걷기대회'는 오전 8시30분까지 대종대 공원 입구에서 현장 접수 후 이곳에서 행사장 특설무대까지 약6.5㎞ 구간에서 열린다.

한편 부산시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지하철 1호선 부산역(7번 출구)에서 행사장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김수희기자 kami@metrobusan.co.kr

송전탑 공사장 굴착기 이불삼아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지 사흘째인 22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됫산 현장의 송전탑 공사에 맞선 한 주민이 굴착기를 이불 삼아 드러누워 있다. /연합뉴스

원폭2세피해 김형률 추모제

한국 원폭 2세 피해자 고 김형률 8주기 추모제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부산 중구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제는 한국 원폭 2세 피해자 김형률 추모사업회 유족, 원폭피해자, 추모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를 위한 묵념, 약력 소개, 추모 영상과 추모사, 유족 인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고 김형률 씨는 한국원폭2세환우회 초대 회장으로 2002년 3월 국내에서 최초로 자신이 원폭 후유증을 지닌 원폭 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엔저로 日관광객 42% 줄어 유치 중단기대책 마련 추진

엔저 여파가 부산의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2%나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엔저 지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엔저 지속에 따른 일본 관광객 유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일본 전문 여행사에 대한 특별 융자(대출금리 2.94%)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 대책으로는 부산 방문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 규슈지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크루즈 전세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후쿠오카·나가사키현과 공동 선상 관광, 의료 프로모션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 측과 협의에 나섰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 서울시 중구 신당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9862

첨단 기계 한자리에 22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13)에서 관람객들이 첨단 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첨단 기계 산업의 발전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인 세계 25개국에서 500여 개 업체가 15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연합뉴스

앞막힘 예방 신호제어로 차량 꼬리물기 확 줄인다

부산경찰청 시스템 도입 주요 교차로 설치

교차로 혼잡의 주범인 차량 꼬리물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신호제어 시스템이 부산에 도입된다.

부산경찰청은 '앞막힘 예방 신호제어 시스템'을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차로 주변에 감지기를 설치해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꼬리물기 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이 최근 문전교차로와 미남교차로에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꼬리물기 운전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 문전교차로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1시간 동안 차량 꼬리물기는 3차례에 불과했다. 이전에는 평균 20차례나 됐다. 적발된 차량도 170대에서 31대로 82%나 감소했다.

미남교차로에서도 출근 시간대 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이 250대에서 18대로 줄었다.

경찰은 꼬리물기 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상습 정체 구간의 교차로에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족·북 이탈주민 29쌍 결혼식

부산시는 23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29쌍의 합동 결혼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례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날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베트남 신부 16명을 비롯해 중국 7명, 필리핀 1명, 라오스 1명, 캄보디아 3명, 새터민 1명 등이다.

시는 신혼여행을 포함한 결혼식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추억에 남는 결혼식을 위해 신부에게 한복 1벌씩을 선물할 계획이다.

또 부산여대로부터 신부 메이크업, 웨딩드레스 및 신랑 턱시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받아 아름다운 결혼식을 연출하며 결혼 예식이 끝난 뒤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커플 야외 촬영 및 시설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에는 경주에서 피로연을 개최하고 다음날에는 자녀들을 동반해 경주 유적지를 도는 가족 관광 코스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결혼식을 위해 파크랜드에서 20만원 상당의 신사 양복,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30만원 상당의 숙녀복 상품권, 부산은행에서는 20만원권 부산은행 기프트카드를 협찬하고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는 결혼 가정에 의세기를 선물할 계획이다. /김수미기자

사상구 도서벼룩시장 25일

부산 사상구는 오는 25일 삼락생태공원 중앙광장에서 '2013 도서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개인 소장 도서나 장난감, 애장품 등을 자율 판매하고 과월 잡지, 기증 도서 등을 무료 배부한다.

또 입체 팝업북, 미니북, 빅북 등 다양한 이트북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아외 인형극, 동화구연, 서비이벌 독서 퀴즈대회 등의 문화행사와 캐리커쳐, 우드 아트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폴아트 책갈피 장식품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부산시민공원 그리기 대회

부산시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부산시민공원 조성 현장에서 제1회 부산시민공원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생 200명을 포함해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여한다. 그리기 대회는 시민공원 일원에서 200명의 초등학생이 시민공원 내 수목 등 풍경화를 그리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22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민실태조사 집단거부로 에코델타시티 보상 차질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주민들의 실태조사 전면 거부로 보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에코델타시티 1-1단계 사업 보상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1단계 사업구간인 명지동에 대한 보상 실태조사는 90%가량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강동동과 대저동 나머지 3단계 사업 구간의 실태조사는 주민들이 전면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실태조사팀의 호별 방문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을숙도대교~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170리 뱃길 열린다

부산·경남 문화관광루트 개발—나루터 10곳 복원 등도

부산 을숙도대교 나루에서 창녕군 길곡면 나루까지 낙동강 170리(68.5㎞) 뱃길이 열릴 전망이다.

부산시 김종해 행정부시장과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3차 부산·경남 한인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동강 뱃길 복원 문화관광 루트 조성, 허황후 신행길 및 가야 문화권 공동 관광 상품화 등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부산 을숙도대교 나루에서 창녕군 길곡면 나루까지 뱃길 68.5㎞를 복원하고 낙동강 문화관광 루트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낙동강의 임해진·하포·수산·오우전·용당·물금·화명·구포·삼락 하단나루터 등 나루터 10곳을 복원키로 했다.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나루터 10곳에 매표소와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유람선 6척을 두입해 창녕함안보 등을 비롯한 부산 사하구와 북구, 경남 김해·양산·밀양·창원·창녕 등을 경유하는 낙동강 뱃길에 관광 유람선을 운항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김천 송도 선터알파크에서 운항 중인 카페를 떠미로 한 유람선사진을 낙동강 뱃길에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 제공

시는 내년 7월까지 을숙도 화명 선착장을 운영하고, 2015년에는 구포역 선착장을 추가 건립해 낙동강 생태 자연공원과 을숙도 오토캠핑장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하단나루터-화명나루터를 오가는 낙동강 하천 유람선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불교 문화 유입로인 허황후 신행길을 조선통신사행렬과 함께 활성화해 가야 문화를 재조명하고 부산·경남 국제 공동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키로 했다.

허황후 신행길로 전해지는 망산도(진해·용원) 유주암 흥국사·김수로(허황후)왕릉 간을 가야 문화와 연계해 역사 문화관광을 상품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에서 사업비 2억원을 들여 2014년 TPO 문화 교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허황후 신행길 등 가야 문화권을 동아시아 우수 문화유산으로 육성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추진 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기와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주식 트레이딩스킬 강좌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7월 4일부터 금융투자회사 영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 트레이딩 스킬' 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은 주식 영업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실무 지식 습득 및 주식 매매 스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주식투자 상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술적 분석, 주도주·테마주 및 성장주 가치주 투자 전략, 주식 운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업계 실무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된다.

한편 이 강좌는 종사자 외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051)867-9746

해외 유명브랜드 30% 세일

부산 신세계센텀시티는 오는 24일부터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유명 브랜드 60여 곳이 참여하는 시즌오프(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일에는 참여 브랜드 대부분이 봄·여름 상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슈컬렉션·지미추·미아렐코어스·돌체앤가바나·비비안웨스트우드·지방시 등 기존 센텀시티점에서 만날 수 없었던 16개 새로운 브랜드도 참여한다.

신세계 센텀시티 안용준 홍보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세일에 참여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다양한 최신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호위함 '시드니함' 입항 호주 해군 호위함 '시드니함(4200t)'이 2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시드니함은 길이 138m, 폭 14m 크기로, 승조원은 220여 명이다. 시드니함은 25일까지 UN기념공원 참배, 한국 해군과의 친선 체육활동, 연합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선 활동을 한 뒤 일본으로 이동한다. /해군작전사 제공

그린닥터스·온 종합병원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부산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온 종합병원이 후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과 부산시 지역아동센터구군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가 오는 25일 오전 9시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지역아동센터의 날에는 부산의 200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런런! 칠드런!' 마라톤 행사를 전국 최초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00여 명의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자리한다.

행사에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청소년봉사단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온 종합병원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료 지원에 나선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센터 어린이들이 밝고 희망 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시장선거 '물밑 경쟁' 치열

내년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부산시장 자리를 넘보는 후보들의 물밑 행보가 뜨겁다.

22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4선의 서병수 의원으로 지난 13일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가장 먼저 내년 부산시장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또 부산 남구의 김정훈(3선) 의원과 친박 3선의 유기준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재선 그룹에서는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진복 의원, 박민식 의원, 김세연 의원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의원 그룹 밖에서는 설동근 동명대 총장이 단골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노기태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고 출신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현 부산시 정무특보, 안준태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행보를 시작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도 거론되고 있다. 또 박재호 시당위원장, 최인호·이해성 지구당위원장 등도 물망에 올랐다.

이외에 통합진보당에서는 민병렬 최고위원, 새정치권에서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예전처럼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뉴시스

지식융합 창조형 기업에 부산은행 대출지원 시행

부산은행은 1조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상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동반성장대출에 지식 융합 창조형 기업 지원 부문을 별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 대출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지역 기업들을 중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유 기술혁신형 기업, 기술력 우수 하이테크 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우수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국내 유턴기업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기업별 신용도 등에 따라 최저 3.8%의 저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건협 부산센터·바르게살기 시협의회 건강증진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지난 20일 종합검진센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와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김병학 본부장은 "바른 건강 정보와 근거 중심의 의료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장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 건강 증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 교육, 건강검진 및 최신 검사 시스템 도입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콜롬비아 '어린이 현대 레알사전' 눈길

돈: 있으면 친구, 없으면 적 노인: 종일 앉아만 있는 사람 질투: 친구에게 돌 던지는 것

metro Colombia

"돈이 있으면 친구, 없으면 적…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

콜롬비아 교사가 엮은 '어린이 사전'에 나오는 돈과 노인의 정의다.

초등학교 교사 하비에르 나랑호는 10년간 교단에 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참신한 시각에 감탄했다. 그는 아이들의 개성 넘치는 생각을 한데 모아 '별들의 집' 아이들이 말하는 우주'라는 제목의 사전으로 엮었다.

8세 소년 안드레스 베도야는 어른을 "어떤 일에 대해서든 말하는 사람으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12세 소녀 어니 마리아 노레냐는 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게 있으면 친구가 되고 없으면 적이 된다"고 정의했다.

또한 아이들은 '하느님: 강력한 힘을 가진 긴 머리의 사람', '우주: 별들의 집', '폭력: 평화의 나쁜 부분', '노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 '달: 우리에게 밤을 주는 것', '질투: 친구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 등 여러 단어에 대해 참신한 정의를 내렸다.

나랑호는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각자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 잊은 것들을 다시 보여준다"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필리핀-대만 양측 달라 필리핀 마닐라의 마카티 금융지구에서 22일(현지시간) 필리핀 시민 운동가와 해외 노동자들이 대만 정부에 필리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어민 격려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대만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의 대만 내 노동 활동 제한 등 11개 항의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 욕먹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착취문제 교육시켜라"

일본정부 혼쭐낸 유엔

"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국민에게 가르쳐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할머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한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 변호사들 "하시모토 징계청구"

한편 오사카 변호사회가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변호사회는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하시모토의 위안부 발언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를 준비 중인 변호사들은 "하시모토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시모토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징계가 청구되면 오사카변호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펑' 소리와 함께 다섯 명이 땅속으로…

中 선전서 또 싱크홀 실종자 수 파악 안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sinkhole) 현상이 발생하면서 5명이 숨졌다고 22일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싱크홀은 20일 선전 룽강구에 있는 훼마오 공업단지 입에서 발생했다. 한 목격자는 "오후 9시10분께 퇴근하던 중에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노면이 꺼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근 상인은 "마침 그때가 퇴근 시간이라 도로에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다섯 명이 구멍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지름 10m, 깊이 4m 크기로, 몇 명이 구멍 안으로 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구조대는 거대한 구멍에서 한 명을 구조했다. 구조대는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선전에서는 지난 3월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도 지름 6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 잠을 자던 남성이 땅속에 함몰돼 숨지는 일이 있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93.83 (+12.74)	574.25 (+1.59)	2.51 (+0.01)	1114.50 (+1.00)

뉴스&뉴스

영양산에서 올라온 '명이나물'

2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고 자양강장효과가 뛰어난 경북 울릉산 '명이나물' 절임을 소개하고 있다. 가격은 1통(250g)에 8500원. /연합뉴스

대부업체 92% 순자산 1억 밑

●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 중 상당수가 순자산 1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 편의점 하나를 개업하려고 해도 최소 3억원 이상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유사 금융 업무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대부업체의 92%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순자산 1억원 이상을 의무화하면 전체 대부업체 1만1702곳 가운데 92.2%인 1만779곳이 기준에 미달, 폐업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재홍기자

대출 쉬운 현대 다이렉트론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의 대출 자격이 보다 넓어졌다. 직장보험 없이 지역보험을 납부하는 고객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다이렉트론은 인터넷·전화·스마트폰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30분 내 빠른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문의 1588-5330

5~6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 봇물

5~6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6월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단지는 총 9개 단지 1만1019가구로 이 중 365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재건축 4개 단지에서 2768가구(일반 871가구), 재개발 5개 단지에서 8250가구(2783가구)가 각각 나올 예정이다.

또 입지와 단지규모 및 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장의 분양도 일부 있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에 연간 물량의 59%가 공급된다. 특히 이미 분양을 마친 6만803가구를 제외한 6만8397 가구가 5~6월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6월 공급될 예정물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기대비 가장 많은 물량이 대기 중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청약결과도 양호하다"며 "5월까지 분양된 사업장의 지역별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2.54대 1, 광역시 1.13대 1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기자

구닥다리 재테크? '핫한' 적금

은행들 최대 연6% 확정금리형 상품 출시
저금리·투자불안에 지친 재테크족들 솔깃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경애(72·여)씨는 지난 10일 외환은행에 1년짜리 정기적금을 새로 들었다. 6년 전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3.7%대로 줄이기 위해 은행 직원이 권한 까닭이지만, 조그만 단기적금 하나쯤 더 들어놓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기적금 바람이 매섭다. 금리 1% 시대에 금리 하락폭은 낮고 펀드보다는 안전한 투자가 적금이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도 4%대 확정금리를 앞세워 가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기적금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3월 말 기준 17개 예금은행의 정기적금은 1조6411억원 늘었다. 지난해 7조5364억원 증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장인과 자산가 등을 불문하고 금융권 전반적으로 재테크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적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시중은행에서 연 6%의 고금리 상품도 찾을 수 있다.

NH농협하트정기적금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나 헌혈증 등을 내면 우대금리를 준다. 기본금리 연 2.80%에 우대금리를 모두 챙기면 연 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직장IN플러스적금'은 만기 3년 가입 시 최고 연 4.2%의 이자를 준다. 20~30대 직장 초년생들의 첫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KB국민은행의 'KB국민첫재테크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3.7%지만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4.2%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IBK흔들어적금'은 스마트폰 전용 상품이다. 10명 단위로 모이면 최고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6개월제 연 3.3%, 1년제 연 4.0%, 2년제 연 4.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지석기자 kuzzhenz@metroseoul.co.kr

"모기·진드기, 오면 다쳐!" 22일 다이소 서울 종각점에서 모델이 모기·진드기 등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 퇴치 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다이소 제공

1000원 미만 '동전주' 급감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1주에 1000원도 하지 않는 '동전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급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1745개 구성 종목 중에서 동전주는 99개였다. 이는 지난해 말 159개에서 60개(37.7%)나 줄어든 것이다. 올 들어 코스닥지수가 15.4% 오르고, 코스닥 중에서도 소형주지수는 23.9%나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김형철기자

<독일산 '그루먼 커브마스터'>

현아 뮤비에도 뜬 그 버스

SKT 이동센터 '착한버스' 국내 유일 차종 화제몰이

잘 빠진 자동차 하나가 쁜 모델 안 부러운 마케팅 소재로 쓰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전국 도심지와 대학 축제가를 돌며 요금제 상담과 데이터 증정 이벤트 등을 벌이는 SK텔레콤의 '착한 버스'.

23일부터 이틀간 부산 경성대에서 젊은이들과 부대낄 이 빨간색 대형 버스가 수입부터 운행까지 모두 복수 제작된 국내 유일 차종이란 사실로 인터넷과 마니아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유일 차종으로 알려진 SKT '착한 버스'. 다음달 1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마케팅을 위해 차량 외관과 내부 모두 특수 제작됐다. /연합뉴스

2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버스는 독일 모건 올슨사의 '그루먼 커브마스터'란 워크-인 밴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화물 적재 트럭 또는 화물 수송 차량 주로 쓰인다.

둥지하면서도 고급스런 이미지로 각종 할리우드 블록 버스터급 영화나 각종 뮤직비디오의 백댄서(?)로도 자주 출연한다. 최근에는 아이돌 현아의 싱글 앨범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했다.

SK텔레콤은 알록달록한 특수 페인트 자체 내부 개조를 거친 이 '착한 버스' 제작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물로도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기획한 '착한 캠페인'이 전국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마케팅인 점을 감안해 직접 버스 제작 전담팀을 꾸려 착한 버스의 구매와 정식 등록절차까지 밟았다"고 말했다.

착한 버스 제작을 위해 들인 마케팅 비용은 대외비로 함구했지만 업계에서는 수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마케팅 관계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사에서 자동차는 움직이는 모델"이라면서 "SK텔레콤의 착한 버스뿐 아니라 BMW의 이트 콜레보레이션 등 각 기업에서 자동차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해기자 unique@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보건부, 네이버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 제지

● 네이버의 병원 키워드 검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질환이나 전문병원 검색 시 비전문병원이면서도 전문병원인 것처럼 노출되는 '키워드 광고'의 악영향을 우려한 까닭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명칭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의료 광고를 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지난 16일 키워드광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19일을 기한으로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를 지속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박성훈기자

SKT, 3G에만 있던 맞춤형 요금제 LTE용 출시

● SKT는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을 고객이 직접 조합해 사용하는 LTE 맞춤형 요금제를 업계 첫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들은 음성 4개 구간(100~400분), 데이터 5개 구간(250MB~6GB), 문자 5개 구간(100건~1000건)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요금제는 그동안 3G 가입자 대상으로만 운영되었다. SKT는 이 요금제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문해기자

10만원에 누리는 '호텔 스타일'

코업시티하우스 사인 눈길

서울 시내 숙박시설에 대한 수급 불균형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7일 서울시가 '매킨도사 골드너 방식'에 따라 숙박 수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내 하루 평균 숙박시설 부족분이 현재 1만 7309실에서 2015년 2만3252실, 2016년 2만5265실에 이어 2017년에는 3만1145실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대표 상품인 코업시티하우스 사인의 그랜드 오픈에 집중하고 있다.

코업시티하우스 사인은 호텔식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호텔식 서비스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호텔에 비해 8만~1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코업시티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해외 바이어, 직장인, 유학생 등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어 미래가치가 밝다"고 전했다.

또 코업에서는 이미 10여 개의 코업레지던스를 분양·운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코업시티하우스 사인이 분양가 대비 2년간 최대 12.9%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레지던스의 1등 브랜드인 코업시티하우스 사인은 지상 20층 1개 동 총 185실에 전용면적 20~23㎡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문의 1600-0977

삼성전자 '팬택 3대 주주'

3자 배정 유상증자로 530억원대 지분 인수

팬택이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우군을 확보했다.

팬택은 삼성전자가 자사 지분 10.03%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22일 깜짝 발표했다. 총 투자금액은 530억원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미국 퀄컴(지분율 11.96%), 산업은행(11.81%)에 이어 팬택의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삼성전자는 퀄컴과 마찬가지로 팬택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팬택은 이번 삼성전자의 지분 참여로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해 경영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채권단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지분 투자는 박병엽 전 부회장의 제안을 삼성전자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준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해 회사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외부 투자 유치에 전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휴대전화 시장이 건전한 경쟁을 하며 각의 공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국정기자

천안 제3산단 속 오아시스같은 집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소형위주 1024가구 분양

대림산업과 삼호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일원의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E-2블록에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를 분양 중이다.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는 4만6329㎡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7~26층 12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면적 ▲51㎡ 217가구 ▲59㎡ 288가구 ▲72㎡ 269가구 ▲84㎡ 240가구 등 전체 1024가구가 100%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있다.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는 천안에 7년여 만에 공급되는 소형(60㎡ 이하 515세대) 단지 위주의 실속형 세대 구성과 혁신적인 4베이 평면 구성(51㎡ 제외), 4500세대 스마일시티의 미래 비전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일시티'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45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는 단지중심인 E-2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도심의 아파트들과는 달리 용적률은 같으면서도 층수를 최고 26층까지 높여 낮은 건폐율과 최고 75m의 넓은 동 간 거리를 실현했다.

또 약 42%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초록 웰빙 단지로 계획했으며 사업부지를 감싸 흐르는 실개천(산동천)과 산업단지 내 풍부한 녹지 및 공원은 기존 도심에서 누릴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는 중소형 면적임에도 혁신적인 평면 설계를 선보인다. 51㎡, 59㎡의 경우 전 세대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남동향 판상형 구조로 배치했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북구 두정동 한국전력 옆에 위치(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번지)하고 있다.

문의(041)567-3335 /정지용기자

교정서 보트 타고 군인 돼보고 대딩 솜씨 느끼고…'이색 체험' 즐거워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교정 내 일감호에서 축제 기간에만 출입 수 있는 일감호 보트를 타고 사진을 찍고 있다 /건국대 제공

한성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지난 15일 대동제에 참가한 육군 학생군사학교(ROTC) 부스에서 군인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교정에서 축제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프리마켓에서 물픽·목걸이 등을 고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학생 주민>

프리마켓·책잔치…술 대신 소통 채우다

■ 연대 홍대 축제 현장

응원전 300m 긴 줄 공연엔 직장인 몰려

"쿵 쿵 쿵 쿵"

커다란 스피커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심장박동을 재촉한다. 지난 16일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았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연대 응원전 '아카라카'의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이 노천극장 앞으로 난 언덕길에 300m 이상 늘어서 있다.

학교를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고 얼굴 스크린 속 하얀 유령 가면을 쓴 학생, 페이스페인팅으로 한껏 멋을 부린 학생 등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들입구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한 학생은 "입장권이 1만원에 유료로 판매되는데도 경쟁이 치열해 암표가 돌 정도"라고 귀띔 대들렸다.

15&, 'YB'에 이어 특별 게스트 '소녀시대'가 무대에 오르면서 사위에 어둠이 내리고 분위기는 무아지경으로 달아 오른다.

저녁 8시께 홍익대 운동장에도 공연팀이 무대에 올랐다. 젊은이들의 유흥기로 유명한 술의대 공연에는 근처를 지나던 직장인도 대거 몰려왔다.

길목에는 간이 칵테일바가 차려져 무알코올 칵테일을 든 채 음악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안현수(30·프로그래머)씨는 "예전에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공연을 함께 갈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는 것 같다"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김용재기자

◆ 대학별 축제 일정 및 출연 가수

기간	대학	출연가수
~5월 24일	고려대	장윤정, 로이킴, 정준영 등
	한양대	걸스데이, 김창, 다이나믹듀오, YB
	이화여대	씨스, 로이킴, 딕펑스 등
	동덕여대	버스커버스커, 바밀전보, 도끼 등
5월 27일~5월 1일	서강대	박재범, 다이나믹듀오
5월 27~30일	국민대	노브레인, 씨니, 에픽하이, 다이나믹듀오 등
5월 28~30일	성신여대	로이킴, 투빅, 김조한, 버스커버스커 등
5월 28~31일	숙명여대	유승우, 10cm 등
5월 29~31일	덕성여대	신화 등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 노천극장에서 열린 응원전 '아카라카'에서 서로의 어깨를 걸고 응원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맘때면 불거지는 대학가의 음주 관련 사건·사고로 '술판 축제'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주점'을 아예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각 대학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주점을 운영하되 음주 절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또 다양한 대체 문화를 제시하며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금주 축제'를 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올 초 '무알코올 대동제' 실현 안건을 학생총회 표결에 붙였지만 90% 가까운 반대로 부결됐다. 대신 시립대는 축제 하루 전인 21일 '절주 서약식'에 이어 축제 기간 동안 음주문화연화 동대문구 보건소 등과 함께 절주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인하대 역시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치러진 대동제 동안 '인하 건전 홍보대사'를 선발, 흡연과 음주 자제 캠페인을 벌였다. 이원근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주점 설치를 막자는 얘기지만 고성방가를 자제하고 즐겁고 안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학 당국이 주점 설치를 금지해 논란을 빚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는 '월드빌리지'를 운영했다. 술은 러시아, 인도 등 각 나라의 전통 술을 맛보는 것으로 대체했다.

홍익대학교 동아리 동아리 오일(OILE) 회원이 지난 일 서울 서대문구 교정에서 열린 프리마켓 '예미프로젝트'에 참여, 판매할 부채에 그림을 그려넣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홍대 예술시장 일반인 단골 생겨 대학가 '무알코올 대동제' 확산

홍익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축제 기간 설치할 수 있는 부스를 과 동아리가 아닌 일반 학생에게도 개방하는 프리마켓(벼룩시장·개인 간 물물교환이나 소규모 직거래 장터)으로 눈길을 끌었다.

홍대 예술대 학생회가 진행한 프리마켓 예미(藝美) 프로젝트에는 20개 팀이 참여해 즉석 초상화·즉석 시진·수제 팔찌·즉석 동양화 부채·엽서 등을 판매했다. 동양화과 동아리 오일(OILE)의 유수정(21)씨는 "오리엔탈 일러스트 등 동양화를 그려넣은 부채와 엽서·책갈피 등을 판매했다"며 "즉석 주문이 밀려들어 준비한 부채가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자랑했다.

도자유리과의 도자기 판매 부스는 실용성이 뛰어나 교수·교직원뿐 아니라 해마다 찾는 일반인 단골손님이 있을 정도다.

남자친구 정두백(23)씨와 즉석 커플 초상화를 그린 조윤빛(24·홍대 전자전기과)씨는 "직접 만든 팔찌와 염색한 양말, 스타킹 등을 구입했다"며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예년 이용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경희대는 '북(Book)적북적'이라는 콘셉트로 대동제를 채웠다. 지난 13~16일 동안 진행된 대동제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 등 말 그대로 책 잔치였다.

29일 막을 올리는 덕성여대 대동제에는 드레스 코드가 한복인 '한복파티'가 진행된다. 공연 관람과 한복 퀸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가수 공연에 빠지고 기타 선율에 젖고…음악이 있어 더 신나요

15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아카라카' 응원전에서 가수 소녀시대가 공연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제공

한 여대생이 지난 21일 축제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6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아카라카' 응원전에서 가수 윤도현이 공연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제공

대학교길 따라 들어찬 명소 '낭만 두배'

대학가의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21일 고려대 '2013 석탑대동제'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물풍선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젊음과 열정이 한껏 분출하는 대학가 축제는 이제 학생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축제 프로그램만 즐겨도 부족함이 없지만 아름다운 캠퍼스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명소를 연계하면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안암동 주변

석탑대동제가 한창인 고려대에 가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숲길을 걸어봐야 한다.

22일 만난 이 학교 3학년 박성진씨는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캠퍼스의 정취를 만끽하다 보면 문과대 뒤편 울창한 숲 사이로 다람쥐길을 만날 수 있다"며 "남녀가 함께 걷다 다람쥐를 만나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추천했다. 성북역에서 돈암동을 지나 국립정서, 개운산 둘레길, 북악산로를 거쳐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코스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 걷기 좋은 길로 정평이 나 있다.

"고대 잔디는 막걸리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이제 고려대 주변에서 막걸리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부터 안암동로터리까지 참살이길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부터 갤러리 카페·퓨전 주점·분식점·미용실·PC방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

◆신촌 주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창천교회 앞 구간에서는 25일부터 신촌문화축제가 열린다.

이 지역엔 유달리 추억의 명소가 즐비하다. 1971년 음악다방으로 처음 문을 열어 대학생들의 아지트이자 메신저 역할을 했던 '독수리다방'이 올 초 8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최근 재개장한 90년대 음악 애호가들의 명소인 홍익대 앞 '레코드포럼'과 연희동으로 옮겨 재개장한 '리치몬드 제과'를 함께 둘러보면 추억을 되살릴 수도 있다. 창천동 하숙촌 골목에 자리 잡은 대안 문화공간 '작은 풀씨의 꿈'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대학생들의 공연이 열린다.

사랑 이뤄진다는 고대 숲길 강추
역사 품은 동대 주변 나들이 제격

연대 솔숲인 청송대에서 안산 봉화대나 자락길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홍대 앞 피카소 거리, 이화여대 앞 패션의 거리도 명소가 된 지 오래다.

◆남산·중부권

남산 자락 동국대는 불교의 정취가 묻어나는 친환경 숲길 캠퍼스로 주목받는다. 100여 년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캠퍼스 곳곳에서는 불교 문화와 우리 역사를 볼 수 있으며 팔정도와 정각원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남산 국립극장, 장충단공원, 남산순환도로 등의 인근 시설과 연계하면 나들이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서울숲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인 한양대는 최근 왕십리 패션 문화의 거리가 주목받으면서 쇼핑과 즐길거리도 많아졌다. '88계단'으로 불리는 높은 계단에는 '애국', '한양' 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애국계단으로 다녀야 A학점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다.

건국대·세종대 인근에는 어린이대공원, 건대의관길, 일감호, 서울디자인거리, 아차산공원 등 산책 코스와 화양리 맛집 등이 많아 인기가 높다.

/백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 나눔과 봉사 흐르는 축제

재능기부 콘서트 열고 음식 팔아 이웃도 돕고

대학 축제가 먹고 마시며 즐기기만 하는 마당은 아니다. 최근 대학가 축제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이 나눔과 봉사다.

22일 대동제가 개막된 성공회대는 총학생회가 나서 소비 지향적인 축제가 아닌 절약과 나눔의 축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돈을 아껴 쓰고, 재능을 나누고, 사회 소수자와 입장을 바꿔보고, 열정을 다시 쓴다는 의미로 '아·나·바·다' 축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1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캠퍼스 야외무대에서 축제 전야제로 열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2013 재능기부 콘서트 Harmony'에서 출연자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서울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는 축제 전야제가 열린 21일 지역 복지관 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해 음악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재능기부 하모니 콘서트를 열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인하대 자연대 학생들과 봉사 동아리 '개구장이'는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커피와 기증 중고용품 등을 팔아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내놨다.

건국대의 봉사 동아리 '가난지기'는 지난주 대동제 기간 중 휠체어 체험 등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중부대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은 최근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축제 기간 중 주변국 학생들과 함께 각국의 전통 음식을 준비, 판매해 수익금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채동효기자

star bag

싱글 '넘버 원' 상큼 듀엣송

'슈퍼스타K 3' 출신인 원조 오디션 혼성 듀오 **투개월**이 24일 싱글 '넘버 원'을 발표한다.

'넘버 원'은 퍼퓸피스가 작사·작곡한 듀엣송으로 상큼한 분위기에 도대윤의 부드럽고 김예림의 독특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곡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더 로맨틱' OST 이후 1년3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中 유명 의류업체 모델 발탁

한류스타 **장나라**가 중국의 유명 의류업체 이러썬끄이 모델로 발탁됐다.

업계 측은 "중화권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나라의 높은 인지도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장나라는 모델 계약 체결 후 진행된 특별 공연에서 '첨밀밀'을 라이브로 열창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영화 '노브레싱' 캐스팅

걸그룹 달샤벳의 **아영**이 영화 '노브레싱'에 캐스팅됐다.

그는 이 영화에서 정은(권유리)의 친구인 '예나' 역을 맡아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귀엽고 개성 강한 여고생을 연기한다.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으로 연기 신고식을 치른 뒤 현재 SBS 월화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출연하며 차세대 연기돌로 주목받고 있다.

7월 일본서 첫 콘서트 개최

록밴드 **부활**이 7월 첫 일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들은 7월 13일 도쿄 시나가와 스텔라볼에서 '부활 퍼펙트 웨이브 콘서트 인 도쿄 2013'이란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여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원과 KBS2 '불후의 명곡'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보인 보컬 정동하의 활약이 소개되면서 일본 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헤드윅 캐스팅 전화 장난인줄"

떠오르는 뮤지컬 스타

손승원

역대 최연소 주인공 · 풋풋한 캐릭터로 승부할 것

동성애 거부감 없어 · 별명은 '뮤지컬계 송중기'

뮤지컬 스타 사관학교로 불리는 뮤지컬 '헤드윅'이 또 한 명의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데뷔 5년차 뮤지컬 배우 손승원(23)이다. 다음달 9일 백암아트홀에서 막을 올리는 여덟 번째 시즌에서 역대 최연소로 헤드윅 역에 발탁돼 조승우·송창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데뷔 5년차 '조승우·송창의와 나란히'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후 '쓰릴 미'(2011), '멜당의 탄생'(2012), '트레이스 유'(2013)에서 잇따라 주인공을 맡은 무서운 신예다. 그리고 단 네 작품 만에 내로라할 스타들이 거쳐간 대표 뮤지컬의 주인공 자리까지 꿰찼다. 어지나 연출가가 그를 조승우·송창의와 함께 트리플 캐스팅으로 전격 발탁했다.

"처음에 제의가 왔을 때 장난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큰 배역을 쟁쟁한 선배들과 나란히 하게 되니까요. 부담이 커서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비교를 당하더라도 선배들에게 배울 점이 많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기회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죠."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한 이 작품은 트랜스젠더 록가수 헤드윅이 그의 남편 이츠학, 록 밴드 앵그리인치와 함께 펼치는 콘서트 형식이다. 조승우와 송창의가 각각 6년과 3년 만에 헤드윅으로 복귀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형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각각 계원예고와 서울예대 선배였어요. 연습 때 어디까지 했냐고 물어보면서 검사를 해주는 등 잘 챙겨주세요. 또 어릴 때 큰 작품을 해보는 건 좋은 기회고, 내 나이 때는 무대에서 무엇을 해도 통한다고 자신감도 북돋워줘서 즐겁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나만의 색을 입히는 영리한 배우

작품을 할 때마다 자신감 있게 배역에 자신의 색깔을 확고하게 입히는 영리한 배우다. 이런 점이 짧은 시간 안에 주연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됐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배역과 다른 모습에 처음엔 선입견을 가졌지만 나중엔 오히려 인정하고 더 좋아했다.

이번에도 연륜 있는 트랜스젠더를 그려낸 조승우·송창의와는 다른 모습의 헤드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납득할 만한 내 색깔을 찾기 위해 형들과 반대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야 관객도 좋아해줄 것 같다"면서 "어린 나이를 장점으로 삼아 풋풋하고 꾸미지 않은 헤드윅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변에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데 기대감을 안고 와서 배우 손승원 매력을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선배들의 실력을 따라갈 순 없겠지만 이런 배우도 있다는 것을요."

#외모와 달리 실제론 '상남자' 스타일

트랜스젠더 역에 걸맞은 예쁜 외모가 돋보인다. 풋풋하고 곱상한 외모로 '뮤지컬계의 송중기'로 불리는 그에게 스태프들도 "세 명의 헤드윅 중에 가장 예쁠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손승원은 역대 가장 예쁜 헤드윅을 묻는 질문에 "김다현·김재욱 선배가 예쁘더라. 송창의 형도 예쁘다"면서 웃었다.

물론 헤드윅 연기가 외모나 자신감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다.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가는 아픔, 남자와의 사랑 등 트랜스젠더의 삶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 세밀한 감정 표현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이번 배역을 맡으면서 트랜스젠더와 미국 동성애 로커들의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말투와 손짓 등 습관을 여성스럽게 바꾸고 있고, 주변 남자들을 보면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죠. 얼마 전에는 이태원 트랜스젠더 바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입구에서 제지당해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동성애 코드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앞서 '쓰릴 미', '트레이스 유'에서 동성애 연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는 "비슷한 배역을 계속 하니 누군가는 '정체성이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했다"면서도 "실제의 나는 '상남자' 스타일이다.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남자다운 역이나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배역 욕심을 드러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세보엔터테인먼트 디자인/박선혜

'인사이드 르윈' 평점 1위…황금종려상 주인은

관심쏠린 칸 국제영화제

15일(이하 현지시간) 개막된 제66회 칸 국제영화제가 26일 폐막을 앞두고 반환점을 돈 가운데, 코엔 형제의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가 경쟁 부문에서 현지 평단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영화 전문지 스크린 인터내셔널 칸 특집판의 중간 평점(4점 만점) 조사에서 3.3점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아장커 감독의 '터치 오브 신'이 3점, 이란 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의 '패스트'가 2.8점으로 각각 뒤를 이었고,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쉴드 오브 스트로'가 1.3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 조사는 20편의 진출작 중 9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1일 공개된 배우 출신 발레리아 브루니 테데스키 감독의 '어 캐슬 인 이탈리아'와 '비하인드 캔덜라브러', '그레이트 뷰티'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뿐더러, 평점 조사는 심사위원단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니컬러스 윈딩 레픈 감독의 '온리 갓 포기브스'와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네브라스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비너스 인 퍼', 짐 자무시 감독의 '온리 러버스 레프트 얼라이브' 등 실력파 감독들의 기대작들이 후반부에 포진해 있어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예년에도 평점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상을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칸에 정통한 전찬일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부운영위원장 겸 영화평론가는 "지금까지로 볼 때 올해 장편 경쟁 부문은 초청작 대부분의 완성도가 비교적 무난한 편이지만 아주 특출난 작품도 없는 것 같다"면서 "심사위원장이 스티븐 스필버그이므로 아무래도 전통적인 드라마가 센 작품에 높은 점수가 주어질 것 같지만, 일본 여성 감독 가와세 나오미처럼 개성 강한 심사위원이 특정 작품의 수상 여부를 두고 스필버그와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칸=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경쟁작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의 감독 코엔 형제와 배우들이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단 코엔, 조엘 코엔, 오스카 아이삭.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클 더글러스가 영화 '비하인드 더 캔덜라브러' 포토콜에서 힘찬 포즈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암 투병 이겨낸 마이클 더글러스 영화 '비하인드…'서 동성애 열연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올리버 스톤 감독은 사석에서 자신의 대표작 '월 스트리트' 1·2편으로 절친이 된 마이클 더글러스의 인후암 투병 근황을 묻는 질문에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캐서린 제타존스가 가족 여행을 떠났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인 '비하인드 더 캔덜라브러'는 병마를 딛고 3년 만에 일어선 더글러스의 건재를 과시한다. 전 세계 영화계가 그의 쾌유를 왜 간절히 소망했는지 알려준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 영화는 1960~70년대 라스베이거스를 주름잡았던 피아노 연주자 리버라체(마이클 더글러스)와 동성 연인 스콧(맷 데이먼)의 실화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애완견 조련사로 양성애자인 스콧은 게이 친구의 소개로 리버라체와 만난다. '미스터 쇼맨십'으로 불릴 만큼 화려한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리버라체와 스콧은 서로 한눈에 반해 동거를 시작하고 5년 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옛된 꽃미남이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들의 관계는 점점 금이 간다.

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특유의 간결 명료한 연출력으로 게이 커플의 '애정 흥망성쇠사'를 담백하게 훑는다. 대중의 사랑과 부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허물어져 가는 두 남자를 통해 사랑과 우정의 오묘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더불어 거짓말과 성형수술이 난무하는 쇼비즈니스계의 비정한 단면을 부담스럽지 않게 꼬집는다.

소더버그 감독의 연출력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주연의 능청스러운 동성애자 변신이다. 극중에서 더글러스와 데이먼은 여느 평범한(?) 커플들처럼 잠자리를 즐기고 사랑과 질투를 주고받는데, 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성 정체성을 의심하게 될 정도다. 특히 더글러스는 성형수술을 너무 자주 받아 눈 뜬 채로 자는 코믹 연기부터 교태스러운 발성까지, 왕년의 섹시가이가 맞나 싶을 정도.

/칸=조성준기자

B대선주조

C1소주에 전하는 5번째 편지 (부산시 금정구 서동 [illegible] 님이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산(Mt. Kinabalu)에서 보내온 사진)

C1은 부산이다

아직도 사직구장에서는 시원만 찾는 당신,
시원이 부산의 명물이라며 엄지를 들어 보이던 당신,
"부산소주로 장난하지 마라"
어느 재벌가의 탐욕에 목소리를 높였던 당신,
부산향토기업이 인수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당신
부산사랑 열에 아홉은 시원이었다며
안타까움에 망굴을 흐리는 당신,

그리고 멀리 동남아 가장 높은 산에서도
'시원 아니마' 임을 증명해 보이는 당신

시원에게는 모두 사랑입니다

주신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원소주는 꼭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뇌졸중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곧바로 상담

닥터 Q & A

Q 저는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최근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병원을 찾았다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질병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흔히들 뇌졸중에 대하여 예방이 되지 않고 치료가 힘들며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뇌졸중은 노인에게만 생기는 질병이 아닌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팔이나 다리, 얼굴에 갑자기 힘이 없다거나 저리고 감각이 무뎌질 때, 발음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질 때, 어지럼증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구토 증상이 심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갑자기 기절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불리는 것은 뇌의 일부분에 일시적인 혈액 공급의 중단으로 여러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개 24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증상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발작이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뿐 아니라 비만을 조절하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한편 채소 섭취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1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치료에 적극 임해야 하며 경동맥 질환이 심하면 경동맥 수술을 시전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6		3		2
			2			1		6
		7	9				8	
			8			4	5	
9				4				3
	4	8			7			
	5				9	7		
6		3			2			
7		9		1				5

	2	5		4				
				8			3	5
	1	4	6	5	9			
	4	6						7
1						8	2	
			8	3	1	6	9	
2	9			7				
				9		7	4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 제공=보누스
면사 스도쿠 플래티넘(파이를 각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올해는 결혼·골인 목표 이룰까 2년 더 기다려야 남편감 만나

(84) 여자 81년 4월 9일 음력

Q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아침 출근길 신문을 보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올해는 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요. 또 한 가지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잘될까요?

A 닭띠생 경금일주(庚金日主)로 질문하신 두 가지는 음리학상 같은 의미의 오름으로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장의 승급운과 시운의 합격 여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여자는 관성(官星)인데 이것이 운에서 정충살(正沖殺)을 맞지 않아야 하고 대운(大運)과 년마다 달려와서 들어오는 운이나 세운(歲運)에 들어오는 운이 건전해야 합니다. 2015년 결혼으로 이어지며 2013년 음력 8월까지는 행동되고 혀를 맞으니 정관(正官)이 상승하는 음력 9월 이후 좋은 운이 많으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용기와 위세가 지나치면 실수를 자초하게 되고 변화가 잦으면 파란을 예고할 수 있으니 답답해도 직장에 충실하여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매달 허덕 팔려고 하다간 되레 손해 가능성

이사한후 여자 70년 6월 5일 음력

Q 회사는 여러 곳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했으나 회사 여건(도산·폐업)상 여러 곳을 전전했으며 급여를 못 받고 나오는 일만 생깁니다.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지요. 지방으로의 이직도 생각 중인데 직장운이나 금전운이 어떤지요?

A 사주가 복음준산(伏吟峻山) 놓고 험한 산에 막혀 월드러 산중(山中)과 같이 실속이 없으며 재물과 배우자궁이 어두움에 가중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관 웨이러 생각이 점순을 수 있으니 이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이 많고 다양한 서울에서도 직업 구하기가 힘이 드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 지방으로 간다면 후회를 많이 불생합니다. 2014년부터는 직장운이 서울에 단창을 하고 다시 떠이나는 시오로 되니 새로운 직장은 꾸준히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출연행이 다소 따르더라도 재물운도 따르니 대출받은 아파트를 팔려다가 시기 맞지 않고 대출 갚을 생각을 하십시오. 맞은자리가 좋고 충실을 찾아 남편 덕은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5월 23일 (음 4월 14일) 박정화 철학원 031)853-8305

쥐 84년생 모든 것을 걸지는 말아야. 72년생 뒤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 뒤도 돌아보아라. 60년생 하고 있는 일에서 누가 작은 보너스가 생긴다. 48년생 입이 마음에 차지 않는 일상.

소 85년생 동행심을 통해하면 상승 효과를. 73년생 새로운 살길 살아를 장만할 일이. 61년생 행동이 마신이 칭찬하는 기분 좋은 하루. 49년생 복작을 깨끗이 하면 운을 여는 데 도움이.

호랑이 86년생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74년생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해야. 62년생 계획성 없는 금전 관리가 필요할 때. 5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즉단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토끼 87년생 주어진 선택권은 없어도 따라가면 무난. 75년생 겨울 러질 수 있으니 정진하는 자세가. 63년생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 있다. 51년생 구성수를 꿰을 수 있으니 일단 한 번 참아야.

용 88년생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76년생 내 생각대로 추진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시기. 64년생 좋은 일과 궂은 일은 붙어 다닌다. 52년생 멀리 떨어진 형제를 회복해야 할 때.

뱀 89년생 분주히 움직이니 하루하루가 짧은 날. 77년생 재능을 다 드러내기는 힘이 들 듯. 65년생 고민거리가 정리되니 마음이 후련하다. 53년생 금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도.

말 78년생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면 선배님께 할 보여야. 66년생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듯. 54년생 비가 왔다 햇빛이 바뀌다 하는 격이니. 42년생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양 79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하니 다소 산만한 오늘. 67년생 결심한 것과는 달리 일이 더딜 듯. 55년생 비록 움직이지만 얻는 것은 기대 마라. 43년생 횡재운이 있으니 가능한 한 시도를 해보아라.

원숭이 80년생 스타일 구겨지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68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기 쉽다. 56년생 갈 길은 바쁜데 발걸음이 만만치 않다. 44년생 어른사람의 고견으로 다관할 수도.

닭 81년생 지금 하는 경험이 약이 되리니. 69년생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새 정보를 접할 일이. 57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듯 용품하게. 45년생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일들은 정리하는 것이.

개 82년생 작은 단위에서 행복을 찾아야. 70년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날. 58년생 책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46년생 괜한 고집을 부리다간 스트레스만 쌓이니.

돼지 83년생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운을 돕는다. 71년생 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59년생 치하사면이라 결론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47년생 마음속엔 답답함이 극할 듯.

류시원 아내 폭행 혐의 기소

부인차에 위치추적기 부착도

배우 류시원이 아내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2일 류시원이 2011년 5월 자동차 정비소에서 아내 조모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월 만에 장치 부착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이를 떼 달라고 요구했고, 류시원은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라고 폭언하며 손바닥으로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류시원은 "나 아는 건달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류시원은 당사 아내의 휴대전화에도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해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올해 2월 조씨가 류시원을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

손호영 차안서 여자친구 사망 미스터리… 그 진실은

"시신 늦은 발견 선팅 탓"

그룹 god 출신 가수 손호영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가 변사체로 발견된 미스터리한 사건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고인의 신원과 손호영과의 관계다. 일단 일각에서 제기된 고인이 여배우 Y라는 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손호영의 소속사 CJ E&M은 숨진 여성에 대해 "손호영과 1년여간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로 연예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고인이 손호영과 동거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성의 자세한 신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증권가 정보지도 등장했다. 이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상털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차량 안에서 번개탄과 화로, 수면제 한 통, 유서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호영과의 갈등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남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속사는 "최근 손호영이 월별 작업 관계로 바빠짐에 따라 시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이런 사건으로 악화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손호영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추측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은 한 가지 의문점은 고인이 왜 손호영의 차량에서 숨졌으며, 사망 6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느냐는 점이다.

소속사 설명에 따르면 사건의 차량은 손호영이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구입한 카니발로, 고인은 운전 주행 연습으로 자주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차량 선팅 농도가 짙어 밖에서는 내부를 보기 힘든 구조 탓에 시신이 방치됐다.

여자친구가 일주일간 실종 상태였는데도 손호영이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이 "손호영이 각종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손호영은 고인이 발견된 다음날인 22일 오전 빈소가 있는 서울 삼성동의 한 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박잔인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첫 캠퍼스 공연 신났어요"

성년된 가수 주니엘

가수 주니엘이 성년의 날 첫 대학 축제 무대에 오른 소감을 전했다.

그는 20일 고려대에서 열린 축제에서 데뷔곡 '일라일라'와 신곡 '귀여운 남자' 등 4곡을 열창했다.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오른 주니엘은 "오늘 성년의 날인데 저도 이제 성년이 됐다. 이곳은 처음 와본 대학 캠퍼스인데 정말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관객의 환호가 쏟아졌다.

주니엘은 가창력이 돋보이는 감성 발라드와 깜찍한 매력을 살린 댄스곡 등 반전 무대를 선사했다. 그는 "대학 축제에서 공연한 건 처음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신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니엘은 지난달 22일 새 앨범 프로모션을 위해 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다가 예상 외의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몰려 행사를 중단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유순호기자

'손호영 사건' 여자 방송인 김씨 애꿎은 피해

손호영 사건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모씨가 엉뚱한 피해자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22일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SNS에는 '죽은 손호영의 여자친구'라는 제목과 함께 20대 여성 김모씨의 사진이 급속도로 퍼져갔다.

사진 속 주인공은 리포터와 CF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으로 손호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김씨는 지인의 생존 확인이 빗발치고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난 잘 살아있다" "저 살아 있어요. 걱정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고 있다.

김씨의 한 측근은 "떠도는 사진은 김씨의 페이스북에서 무단 도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손호영과도 무관한 사이다. 어떤 악의적 의도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외에도 증권가 정보지에는 사건 발생 원인, 손호영의 현재 신변상태, 고인의 직업 등 인적 정보, 과거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대해 추측성 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난무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유순호기자

샤이니 종현 오늘 복귀

샤이니 멤버 종현이 50여 일 만에 복귀해 팀 활동에 날개를 단다.

지난달 1일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와 휴식을 취해온 종현은 23일 케이블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2일 "종현이 합류해 '와이 소 시리어스' 무대를 선보인다. 팝의 강렬한 멜로디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가 결합된 이 곡은 독특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노래인 만큼 종현의 가세로 더욱 강렬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샤이니는 25일 데뷔 5주년을 기념한 파티를 개최하고 종현을 포함한 멤버 전원이 참석해 팬들에게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샤이니는 26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정규 3집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말 시작하는 일본 아레나 투어 준비에 돌입한다. /유순호기자

고영욱 사선 변호사 선임 항소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전날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새 변호인은 1심에서 고영욱의 변호를 맡은 로펌 고우 소속이다.

고영욱의 항소심은 다음달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잔인기자

구석구석

◆제8회 대구세계다(茶)문화축제
날짜 5월 23~26일
장소 대구 북구 엑스코(EXCO)

다례 시연 및 무아차회를 비롯해 차를 통한 명상과 일본 다도, 중국 다예 등 세계의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축제 기간(4일) 내내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은 5000원, 1일 입장권은 3000원에 판매된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제15회 장성홍길동축제
날짜 5월 24~26일
장소 전남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홍길동과 함께 놀면서 배우다를 주제로 총 5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홍길동 4D 영상관에서는 생생한 홍길동 일대 영상이 상영된다. 율도국 방영 체험 산채 체험 등을 통해 직접 홍길동이 되볼 수 있으며, 홍길동 캐릭터의 거리 퍼레이드와 전통 무예 시범을 관람할 수도 있다.

◆제17회 무주반딧불축제
날짜 6월 1~9일
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등나무운동장

반딧불이와 함께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부수군 내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진행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남대천 맑은 물 속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맨손 송어 잡기는 사전에 홈페이지(2012.firefly.or.kr)를 통해 예약하면 참가할 수 있다. /권보람기자 kwon@

관광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품바공연.

'품바의 고향' 웃음 고플새 없네

한바탕 웃으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신명 나는 잔치 '제14회 음성품바축제'가 23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명칭에 '품바'가 들어가 의아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품바=거지'이기 때문. 그러나 축제의 기원이 음성 무극천 다리 밑에서 병든 걸인들을 돌보며 살아온 최귀동 할아버지의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자기는 헐벗고 굶주려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동냥을 하던 최귀동 할아버지의 사랑은 최대의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를 탄생시켰다"며 "이러한 정신문화를 계승한 것이 바로 음성품바축제"라고 소개했다.

/음성=신하흔기자 shin@metroseoul.co.kr

◆ 전국 최대 유일의 공연 '품바 왕중왕전'

품바축제의 백미는 무엇보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음성 품바 왕중왕전'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품바 공연의 일인자들이 치열한 경연을 펼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큰 웃음을 선사한다.

오늘부터 나흘간 '제14회 음성품바축제' 풍겨운 손짓

무극천 걸인 돌보던 최귀동 옹 나눔 정신 계승
품바 왕중왕·장윤정 공연 보고 40가지 체험도

페이스 페인팅을 한 외국인들(왼쪽)과 천인의 품바 비빔밥 행사 모습

축제 둘째 날인 24일부터 조별 예선이 시작돼 마지막 날인 26일 총 1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최종 결선 무대가 마련된다.

축제 참가자들은 왕중왕전 이선로 앞에 펼쳐지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품바공연'을 통해 공연자와 색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품바의 가락과 난타의 신명을 한데 묶은 품바난타를 비롯해 꽃동네 예술단의 공연, 신명풍물예술단 공연,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등과 함께 장윤정 특별 공연(23일), 이상무 코믹쇼(26일), 세와호와 김국환 등 유명 가수들이 펼치는 가요 콘서트(24일) 등 이틀부터 밤까지 풍성한 '특급 공연'이 준비됐다.

◆ 잊을 수 없는 '품바 체험'

'예쁜 것 보다는 품바다움'을 지향하는 품바 체험은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코믹 프로그램이다.

제대로 저렴한 분장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품바 분장 후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남긴다면, 오랜 시간 되새기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또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에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어울리는 신명 나는 난장으로 펼쳐 고스며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인의 엿치기'는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히 자녀들에게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이 밖에 인절미 떡메 치기 체험, 명석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4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박애의 정신 나누는 '개념 축제'

축제의 탄생에 나눔과 사랑이 바탕이 됐기에 품바축제는 '밥'을 나눈다.

특히 '천인의 품바 비빔밥 나누기'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노숙인, 사회복지 장애인 등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나눔도 만나는 '개념 축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 군수는 "수도권 근거리인 음성을 찾아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사랑과 나눔의 행사를 통해 언유여의 소중함도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날짜** 5월 23~26일
- **장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42번지 설성공원
- **문의** 043)873-2241

반기문 총장 생가·큰바위얼굴 공원 이색 재미

충북 음성은 품바축제만 참가했다가 돌아가기에는 아쉬운 관광 명소가 즐비하다.

우선 둘러보아야 할 곳은 한국이 낳은 세계의 리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생가와 기념관, 평화랜드다.

반 총장의 향기 마을인 행치마을은 보덕산이 둘러싸고 있는 온화하고 정겨운 곳이다.

생가는 지난 2010년 고증을 통해 원형 그대로 복원됐으며 생가터 및 선영과 사당, 돌로 만든 세계도(족보), 기념 시비, 연못, 평화랜드 등이 관광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반 총장의 생가는 비움과 채움의 길이라는 뜻을 지닌 '반기문 비채길' 코스의 시작점이자 끝이어서 하루 산행 코스를 계획한 데도 적합한 곳이다.

이와 함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도 놓칠 수 없는 음성의 명소다.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교육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조각공원은 우리의 부사(165㎡) 부지에 내외국 유명인들의 거대한 얼굴상과 만화 캐릭터, 역사적 상징물들까지 다양한 조각품 3000여 점이 주제별로 구성·전시돼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기에 입장료는 어른 1인 기준 6000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충분히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역대 대통령관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최근 기일을 맞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시대의 상징인 제임스 딘, 메릴린 먼로 등 해외 스타와 우리의 월드스타 싸이까지 대중들이 사랑하는 인물들의 조각상도 즐비하다. /글·사진=신하흔기자

반기문 총장 생가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오가게' 롯데백 본점 팝업 오픈

24~30일 '베스트 컬렉션'전… 메트로 독자 이벤트도

트라이씨클의 패션 트렌드 의류 전문몰 '오가게'가 24일부터 30일까지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2층 더 웨이브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오' 핫('O' Hot!)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가게의 베스트셀러 컬렉션전으로 열린다.

PB 브랜드인 '오리스커밍'과 '블루종', '플래퍼', GB 와 여의도·명동·강남 등에서 9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인기 온라인 브랜드 '매그제이'가 참여해 세련된 오피스 레이디룩을 선보인다. 오가게 관계자는 "유행에 민감한 직장 여성들에게 도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을 다양하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메트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벌인다.

신문에 게재된 이미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오가게 팝업스토어에 제시하면 24일부터 26일까지 슈퍼모델 대회 공식 지정 보디 관리 화장품 '슈헨 레그크림(다리에 윤기와 탄력 부여)' 정품을 하루 100개 한정, 소진 시까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문의: ogage.co.kr

/박지원기자

산행 정보담은 '메트로 아웃도어'

24~25일 특별판 배포… '수퍼핏 깔창' 경품 행사도

메트로신문이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이 24일과 25일 이틀간 아웃도어 특별판을 배포합니다.

즐거운 산행과 더불어 각종 아웃도어 정보로 가득 찬 특별판을 함께 읽어보세요. 25일 토요일에는 관악산·북한산·청계산 등 수도권 주요 산 등산로 입구는 물론 지방 산행 버스 출발지에서도 특별 배포합니다.

더불어 기분 좋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수퍼핏(Superfeet) 교정깔창'을 드립니다.

수퍼핏 교정깔창은 발의 불편함을 교정하는 특수 깔창으로, 관절·근육 통증 등이 제자리를 잡아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수퍼핏 교정깔창은 단단한 등고선 모양으로 발의 움직임을 제한해 압력을 발 전체로 골고루 분산시켜 고통을 완화해줍니다.

metrooutdoor

*퀴즈: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상처받은 발의 고통을 달래주는 교정깔창 이름은? □□□ 교정깔창
*기간: 5월 24~30일
*당첨자 발표: 5월 31일
*선물: 수퍼핏 교정깔창 1세트(5만9000원 상당) 30명

'달려오는 CF' 시선 낚네

식품업계 신제품 홍보차량 '찾아가는 이벤트' 효과만점

최근 도심 곳곳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리에서 독특하거나 주민 차량을 종종 마주치게 된다. 신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기업들이 운영하는 차량들로 특히 식음료업계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맥도날드는 최근 선보인 '맥너겟 20조각' 출시를 기념해 맥너겟 모양을 본뜬 설치물을 단 차량을 제작, '맥너겟 게임 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간단한 게임을 하면 맥도날드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로 26일까지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난다. 맥도날드 마케팅팀 조주연 전무는 "찾아가는 이벤트는 제품 홍보는 물론 고객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음료 '번 인텐스'를 출시한 코카콜라 또한 번 인텐스 DJ 차량을 마련해 대학 캠퍼스와 홍대 앞, 가로수길 등을 찾아 3월까지 모두 3만6000여개의 제품을 나눠줄 예정이다.

앞서 샘표에선 지난 2월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요리 에센스 연두를 넣어 미역국을 끓여주는 연두 무빙키친을 운영해 톡톡한 홍보효과를 봤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롯데월드, 강화 명신초등생 초청 훈훈 22일 인천 강화군 명신초교 학생들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생애 첫 서울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롯데월드는 서울로 쉽게 나올 수 없는 도서지역 아이들을 위해 이번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김보라기자

배낭에 양념구이·떡갈비 쏙~

강강술래 포장상품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캠핑이나 산행, 여행 등 아웃도어 활동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포장 상품을 파격 할인 판매한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인기 메뉴인 술래양념구이·강강양념구이 포장 상품(520g)을 각각 44% 할인된 2만90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참한한우떡갈비(2세트·720g)'도 37%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남대푸드 측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 70% 함유된 '촉임자한돈너비아니'(2세트·720g)를 덤으로 준다.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영양 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6봉)도 30% 할인된 2만5200원에 선보이며 버블도깨비방망이를 선물로 준다(소진 시까지).

이달 말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매장 체험기나 가공식품(곰탕·육포·떡갈비 등) 시식 후기 또는 레시피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www.sulla.com) 고객마당에 주소(URL)를 올리면 외식권, 선물세트 등을 증정하며 참가자 전원에겐 냉면쿠폰(2매)을 준다.

또한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민음사 추천 도서도 증정한다.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의 '예능력'과 21가지 디자인과 이색적인 이야기를 담은 '타이니 스토리'를 총 100명에게 나눠준다.

유럽보다 저렴한 에스프레소머신

독일 멜리타 '솔로앤밀크' 23일 CJ오쇼핑 판매방송

원두커피·커피머신 수입사 제이테크라자는 23일 오후 11시50분부터 70분 동안 CJ오쇼핑에서 독일 멜리타의 전자동 에스프레소머신 '솔로앤밀크'를 유럽 현지 가격(499유로·약 72만원)보다 싼 6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로앤밀크는 지난해 12월 첫 방송 이후 매 방송 전량 매진 기록을 세우며 홈쇼핑 에스프레소머신 부문 최고 매출 기록을 달성했던 제품이다.

에스프레소·아메리카노·카푸치노·카페라테 등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동 세척·자동 헹굼·자동 석회질 제거 프로그램 등이 장착돼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격전압인 220V 60Hz에 맞춰 생산된 '한국형' 버전으로 잔 수 제한 없이 얼마든지 연속 추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멜리타 커피머신은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울랜드 다문화 가족 1만명 초청 행사 연다

서울랜드가 26일 다문화 가족 2500가구(1만여 명)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초청 가족은 서울글로벌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개소)를 통해 모집했다. 서울랜드 김대중 상무는 "이번 다문화 가족 초청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울 시민들의 휴식·오락 공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끝없는 사망 '충격'

박남수 칸첸중가 하산중 숨져

지난 몇 년간 김창호 원정대의 대원 사망에 이어 이번에는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한 국내 산악인이 숨졌다.

대한산악연맹은 22일 "장애 산악인 김홍빈(49) 원정부대장과 함께 20일 오후 칸첸중가(8586m)를 등정한 박남수(47·사진) 등반대장이 하루 뒤 하산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등반대장이 정상 등정 후 하산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원정대원이 거슬러 올라갔다가 7900m 지점에서 박 등반대장의 시신을 찾았다.

칸첸중가는 에베레스트(8848m), K2(8611m)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박 등반대장이 속한 대한산악연맹 광주연맹은 탈진 증상이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연맹 관계자는 "박 등반대장이 사망한 당일 거친 날씨 탓에 칸첸중가를 오르던 국내외 원정대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며 "손가락이 없는 장애 산악인인 김홍빈 원정부대장은 현재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탈진 증상에 설맹으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사고를 수습하는 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확 달라진 김병현 4승

넥센, 삼성 제치고 닷새만에 정상 탈환

넥센이 닷새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2안타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8-4로 이겼다. 4연승을 달린 넥센은 시즌 25승째(11패)를 수확, 이날 LG 트윈스에 진 삼성 라이온즈(25승12패)를 밀어내고 단독 선두로 복귀했다. 5일 만이다. 또한 전날 잠실 두산전 17-7 대승에 이어 이틀 연속 두산을 꺾고 위닝시리즈를 예약했다.

선발 김병현은 5⅓이닝 5피안타 4볼넷 3실점의 준수한 피칭으로 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병현은 시즌 4승째(1패)를 수확했다.

LG 트윈스는 레다메스 리즈의 첫 완투승을 발판삼아 선두 삼성 라이온즈의 5연승 도전을 가로막았다.

LG는 22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방문경기에서 삼성을 9-1로 완파하고 전날의 패배를 설욕했다. 최근 6연패에 빠졌던 LG 선발투수 리즈는 9회까지 혼자 던지면서 안타와 볼넷 3개씩만 허용하고 삼진 7개를 잡아내며 1점으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아 시즌 3승째를 챙겼다. 초등판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아닌 리즈의 유일한 실점으로 기록됐다.

한국 프로 무대에서 3년째 뛰는 리즈의 완투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투는 세 번째이지만 이전 두 차례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떠안았다.

한화 이글스는 KIA 타이거즈의 추격을 3-1로 따돌렸다. 올 시즌 처음 맛보는 KIA전 승리였다.

한화는 11승1무25패가 됐다. 에이스 바티스타는 6이닝 6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NC 다이노스는 SK 와이번스를 4-3으로 울렸다.

두산을 상대로 시즌 4승째를 따낸 넥센 김병현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22일

■잠실

넥센	020	005	010	8
두산	100	002	001	4

승리투수=김병현(4승1패) 패전투수=니퍼트(5승3패)

■문학

NC	211	000	000	4
SK	010	011	000	3

■대구

LG	210	030	300	9
삼성	000	010	000	1

■광주

한화	101	100	000	3
KIA	000	100	000	1

"메츠 일어서려면 추신수 잡아라" 뉴욕타임스 진심어린 충고

미국 유력 언론 매체인 뉴욕타임스가 "뉴욕 메츠는 추신수 영입을 통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한국시간) '뉴욕 메츠를 재건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스포츠면 기사에서 한국 출신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의 영입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메츠는 이번 시즌 17승24패에 그치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가운데 4위로 처져 있다. 21일 열린 신시내티와의 홈 1차전에서 3-4로 졌다. 추신수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추신수를 "메츠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평했다. 특히 "메츠가 진정으로 싸우기를 원한다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추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신수는 22일 메츠와의 2차전에서 올 시즌 두 번째로 선발라인업에서 빠진 채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 신시내티는 선발투수 마이크 리크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발판삼아 4-0으로 이겨 2연승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스포츠브리핑

■ 벤클 윤명준 8경기 출장정지

위단이 타자 몸에 맞는 공을 던져 퇴장당한 윤명준(두산)이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8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5회초 유한준·김민성에게 연이어 몸에 맞는 공을 던져 퇴장당한 윤명준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최진한 경남 감독 자진 사퇴

프로축구 경남FC의 최진한(52)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경남은 22일 최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2년 5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경남은 올 시즌 2승6무3패, 승점 12로 K리그 클래식 14개 구단 가운데 11위를 달리고 있다. 올 시즌 초반 7경기에서 1승6무로 무패행진을 달리며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이후 1승3패로 상승세가 끊기면서 순위가 급락했다.

류현진 ML 신인 평가 2위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전체 신인 중에서 두 번째로 꼽혔다.

미국 언론 USA투데이는 매주 발간하는 스포츠위클리 5월 셋째 주 판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신인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 류현진을 2위에 올렸다. 1위는 10경기에 나서 5승을 올린 세인트루이스 특급 셸비 밀러(22)가 선정됐다.

박인비 바하마 출격 "랭킹 1위 지킨다"

세계여자골프 랭킹 1위 박인비(25·사진)가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23일(현지시간) 바하마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 출격한다.

이번 시즌 휴식 없이 달려온 박인비는 피로 누적과 손바닥에 물집까지 잡혀 지난 10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살롱파스컵 대회 2라운드에서 기권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2주 가량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대회가 열리기 이틀전 바하마에 도착한 박인비는 연습 라운드까지 마쳤다. 컨디션은 최상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관심사는 박인비와 스테이시 루이스가 벌이는 1위 쟁탈전이다. 박인비는 이번 시즌 3승을 챙기며 세계랭킹 1위(10.41점)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위 루이스(8.94점)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루이스는 이번 시즌 10개 대회에 출전, 여덟 차례나 톱10안에 들었고 그중 두차례 우승했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룸프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8 How are you feeling today? 질병과 증상에 대해 말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은 나아졌어요.
어지러워요.
다리는 어쩌다 부러졌나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I was sick yesterday but I'm better today.
I feel dizzy.
How did you break your leg?
I slipped on the stairs and fell down. I broke my leg.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빈칸 대화 훈련

문장 전체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몸이 어떠세요 today?
B I was sick yesterday, but I'm better today.

정답 How are you feeling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feel dizzy / nauseous.

2 How did you break your leg / wris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Business English 데미덱 이메일사전

문서나 품목을 검토한 뒤 연락할 것을 약속할 때
Promising further contact after review of a document or item

제안서 검토 후에 연락하겠습니다.
I'll contact you after I look over the proposal.

다시 메일 드릴 때까지 잘 지내세요.
Hold tight until I email you again.

적절한 시간이 되면 연락하겠습니다.
I'll touch base when the time comes.
※ touch base 연락하다

제 감독관이 승인하시면 연락할게요.
I'll be in touch after our supervisor approves the plan.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며칠 더 주세요.
Give me a few days to look this over.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president of Ginu Electronics stated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company was a personal responsibility of _______.

(A) his (B) himself
(C) he (D) him

02 _______ he arrives at the airport in the next ten minutes, Mr. Santini is going to have to take a later flight.

(A) Regardless (B) While
(C) Unless (D) Rather

01. 지누 전자의 사장은 회사의 재무 성과가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해설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로 재귀대명사를 쓸 수 없다. (A) his를 쓴다.

정답 (A) his

02 10분 후에 공항에 도착하지 않으면 산티니 씨는 더 늦은 비행기를 타야 할 것이다.
해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문맥상 '만약 ~하지 않으면'이 어울리므로 (C) Unless를 쓴다.
어휘 later 좀 더 늦은, 나중의 flight 비행편 regardless 관계없는

정답 [illegible]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안하기
답변할 때 자주 쓰는 표현

- 잘못 사과하기

I'd like to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illegible]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I'm sorry about the problem.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 해결책 제시하기

I will send one of my staff members to deliver it.
그것을 배달하도록 직원 중 한 명을 보내겠습니다.

I suggest that you call a catering service.
출장 연회 서비스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

After checking your message, I checked your order.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주문을 확인해봤습니다.

What I propose is that we hire more staff.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것입니다.